

인향인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1년 교지 발간에 즈음하여 올 한 해도 인향인 모두가 건강하고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1년에는 인향인 모두의 노력으로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를 학력수준, 교육여건, 평판도 등 3개 부문으로 분석하여 종합 평가한 고교 종합 평가에서 인천에서 1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면학실인 양현재를 리모델링하여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하여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인향인 여러분, 2012학년도에도 지역사회의 명문고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먼저 학생의 본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자께서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군자는 본분에 힘써야 하고, 본분이 서면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학생의 본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진년 한 해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존재이며, 그러한 나를 위해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그것을 완수하는 자세로 고귀한 자신의 모습을 가꾸어 나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의 중요함입니다. 우리는 작게는 한 교실 안에서, 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향인 여러분, 2012년에도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 인향 가족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꿈꾸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